

# 설 별미 '귀리 떡국' 한 그릇 맛도 영양도 '으뜸'

한우·닭고기로 육수 내면 맛이 더 뛰어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설을 앞두고 귀리 가래떡과 고기육수를 활용해 영양 많고 맛있는 떡국 끓이는 방법을 8일 소개했다. 새해 첫날 복을 기원하기 위해 떡국이라고 전해지는 떡국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명절 음식이다. 떡국의 주재료인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도 세포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 성분과 비타민 B(비)군을 함유하고 있다. 귀리 역시 단백질과 비타민 B(B)군이 많아 쌀과 함께 먹으면 건강도 챙기면서 더욱 맛있는 떡국을 즐길 수 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과 귀리 에탄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베나스 라이미드 등 면역력에 좋은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국물 음식의 깊은 맛은 육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떡국을 끓일 때 한우 고기 또는 닭고기로 육수를 내면 진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한우와 닭고기 육수에는 맛 관련 전구물질 중 감칠맛과 관련 있는 '이노신일인산염' 함량이 멸치육수

보다 약 4~5배 정도 더 많다. 육수 100ml의 열량은 한우고기 육수 19 kcal, 닭고기 육수 21kcal로, 같은 양의 저지방 우유 열량(40kcal)의 절반 정도다. 한우 육수를 끓일 때는 한우 사태 또는 양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태는 근막이 많아 탕요리에 적합하며 오래 끓일수록 고기는 연해지고 국물은 한우 특유의 진한 맛이 풍부해진다. 닭고기 육수는 중간 크기(800g) 생닭에서 노란 기름을 떼 후 찬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한다. 생닭의 껍질을 제거하고 끓이면 육수의 맛이 담백하고 깔끔해진다. 농촌진흥청 증부작물부 조승호 부장은 "감칠맛이 뛰어난 고기육수와 귀리의 기능성을 더한 귀리 떡국 한 그릇으로 오붓한 설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생진원 입주기업들, 코로나19 상황 속 지속 성장

36곳에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매출·고용 등 성과 창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6개의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매출·고용 등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이루었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플렉스창업보육센터는 창업(예비)기업 지원, 첨단바이오식품센터는 연구소기업 지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는 GMP생산 인프라 지원의 Three Track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진흥원 전체 부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어 입주기업들에게 특구 지정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등 신규시장 확대를 통해 36개사 입주기업

매출액은 2019년 591억 원에서 2020년 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과 고용인원은 2019년 241명에서 2020년 282명으로 전년 대비 17%의 성과를 거뒀다. (농)푸드네이처 등 3개사는 기술성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유)영인바이오 등 9개사는 2020년 대한민국 지식경영 경연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 26건의 수상 및 인증 실적을 이뤘다. 이석우 생진원 입주기업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는 임대료 감면과 비대면 화상회의실 구축으로 온라인 바이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 카페 구축 운영으로 바이어 상담 시 무상 활용 등 사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 점에 깊은 감사

하다"며 "올해도 진흥원과 입주기업이 더욱 상생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수 원장은 "입주기업 지원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창업보육팀을 신설,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지원, 입주기업의 성장 증대를 위한 환경개선,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Contact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유지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경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사업 성장을 위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직접적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역량을 강화해 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의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창업보육팀(063-210-65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북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올 상반기 교육생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전북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상반기(13기) 교육생 12명을 3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중점을 둔 교육·실습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 창업에 특화된 분야를 신설하고 교육생을 별도 모집한다. 온라인 분야는 전자상거래(e-커머스)형 제품·서비스를 주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된 판매 교육·실습, 마케팅, 홍보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기존의 직접 판매 중심의 실습 과정은 축소(16주 → 12주)한다. 전북중기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타 사업과의 연계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참여 지원 등 소상공인 창업 아이템이 가진 장점을 고려한 판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13기 교육을 이수한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매장 임차, 마케팅·홍보 등 실전 창업 과정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과도 연계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8일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공로로 전주영생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 '지역 일자리 창출 공로'

전북농협, 전주 영생고·전주대 사대부고에 감사패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8일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공로로 전주영생고등학교(교장 이상훈)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교장 박현규)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농·축협 동시채용을 실시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5일 두 학교에서 응시생 732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인적성 검사를 진행해 최종합격자 79명을 농·축협 일선에 배치했다. 전북농협은 응시자격을 도내 연고자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출신자를 100%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학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영생고등학교는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 전주대 사대부고는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8일 농협 창립6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농·소·연 고객 모시기 챌린지' 일환으로 한국캐미칼(주)을 방문해 김한경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 창립 60주년... 함께한 고객에 감사의 마음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농·소·연 고객 모시기 챌린지'

NH농협은행이 농협 창립60주년을 맞아 그동안 농협과 함께 한 고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8일 농협 창립6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농·소·연 고객 모시기 챌린지' 일환으로 한국캐미칼(주)을 방문해 김한경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농·소·연 고객 모시기 챌린지'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협은행에서 실시하는 이벤트로 농협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고객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캐미칼(주)은 정음시에 소재한

농업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체로 주 품목은 포판, 과일상자, 농업용 자재이며 설립 이후 농협과 25년째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장기요 본부장은 김한경 대표와 함께 제조공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농·소·연 고객 모시기 챌린지는 지난 60년간 농협과 함께 하며 어려움을 딛고 재기하신 고객, 한결 같이 농협과 거래해 주신 고객 등이 대상이며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고객 방문 시 화해봉가 지원 등 위해 꽃바구니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행사 진행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사회적경제 종합정보 '이 책에'

전북도-경진원, 안내서 제작 도민에 배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사업 정보가 담긴 '2021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한다. 안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6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7개 분야 117개 사업도 부록으로 소개돼 있다. 경진원은 코로나19로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자유롭게 사회적경제 안내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 계사관, 민원실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안내서를 통해서도 관련기업에 배부해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기반구축 및 거버넌스 형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공정무역 지원 등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의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경진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통합 지원사업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안내, 지역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 등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라북도와 경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동안 전북형 사회적경제 토대를 닦아온 노후유를 통해, 잠재된 지역순환경제의 회복을 돕고,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 일자리 안정화 및 우수인재 유

출방지를 위한 청년혁신가 지원을 통해 우수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역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250개를 발굴해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유도를 도와 사회적경제 사업장과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창업부분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육성팀 50팀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0개팀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317팀을 육성해 289팀이 창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시장 매출감소 상쇄를 위한 온라인 중심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SNS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펀딩지원 시범사업 운영에 1억원 이상의 매출성과를 거뒀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판매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공공구매 직거래 행사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로개척 영역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 마을기업의 경우 행안부 주최 '모두 사랑 마을기업' 선정에서 도내에서는 최초로 정음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풍사량 유한회사'가 전국 5개 기업에 선정됐다. 2019년에는 마을기업 사무장제도를 전국최초로 도입해 31개소 사무장 33명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진원은 지난해 사회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부문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도 R&D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8일 도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1년 R&D사업 통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과학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 전북테크노파크 유튜브 홍보 채널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홍보 설명회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개발특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캠퍼스종합기술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22개 사업, 335억원의 지원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위기에 대응해 신기술기반 혁신성장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R&D 기술사업화 지원,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과 탄소융합제품 민간보급 사업 등의 지원계획을 역점 안내했다. /유호상 기자

## 도, 기업지원 유튜브 채널 개설

전북도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안내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코로나19로 밤이 묶인 상황에서 비대면 홍보에 더욱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8일 도내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021년도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매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군·사회 설명회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유튜브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영상에는 ▲자금 ▲창업 ▲기술 ▲인력·고용 ▲수출·판로 ▲친기업 환경조성 등 올 한해 6개 분야 107개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담았다. /유호상 기자

## '오·저·닭·고' 체험단 모집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2030 MZ세대를 대상으로 '오·저·닭·고' 체험단을 모집한다. '오·저·닭·고'는 '오늘 저녁닭고기 고(Go)!'의 줄임말로, 닭고기를 좋아하는 MZ세대 소비자들이 닭요리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SNS에 공유하는 모임이다. '오·저·닭·고'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신제품을 비롯해 하림의 다양한 인기 제품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다. 제공받은 하림 닭고기 제품을 자기만의 레시피로 요리하고, 개성있게 즐기는 이미지, 동영상, 웹툰 등을 자유로운 형태로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체험단 신청은 14일까지 하림 자연실록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올라온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 한전 남전주지사 설 명절 나눔봉사 실천

한전 남전주지사(지사장 황인성)는 지난 5일 설 명절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에 생필품 150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생필품 세트는 이번 생필품세트는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전통시장(남부시장)에서 구입했다. 황인성 지사장은 "어려운 이웃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로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